

'KRE리포터' 경남지회 간담회 결과

1. 개 요

- 목 적: 경남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회원농가 견학
- 일 시: 2018년 10월 26일(금) 11:00~16:00
- 장 소: 류진농원(경남 진주시)
- 참 석: 총 12명
 - 경남지회 리포터(11명): 권수열, 도진호, 류재하, 류지봉, 배익선, 안종균, 안희복, 이현순, 임태화, 전연수, 조현국
 - 연구원 관계자(1명): 김미리 주무원
- 주요 일정

시 간	일 정	비 고
11:00~11:30	등록	
11:30~13:00	점심식사	
13:00~15:00	간담회	
15:00~16:00	견학	류재하 회원 농가 '류진농원'

2. 주요 논의 내용

- 경남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
 - 전연수: 최근 농촌 태양광 보급에 대해 이슈인 것 같습니다만, 저는 아직 관련한 지식이나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. 물론 좋은 자재와 적절한 위치 선정 등이 확실하다면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단 무조건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
 - 전경수: 시설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, 시설재배 시 생산경비는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반면 출하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농가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.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

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농촌 태양광 시설은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지 말고,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. 시설유지, 관리, 폐기와 관련해 노하우가 축적된 후에 보급 화해야 할 것입니다. 업자의 논리에만 혼돈되지 말고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입니다.

- 권수열: 태양광 시설 지원사업 및 차후 자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면, 홍보 및 사업화에만 혈안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차후 폐기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,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도진호: 태양광 설치하는 정부에서 시설 및 설치, 추후 관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조복례: 태양광 시설이 보급화 되면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국토가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. 추후 폐기물 처리 등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.
- 안종균: 농업은 평가절하가 심합니다. 투입 노동력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습니다.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, 생산비는 비교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계산되어 물가의 주범이라며 가격을 낮추는 실정입니다. 정책사업은 농가에서 최대한 의견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태양광 보급사업은 좋지 않는 자재로 시공해 추후 A/S나 교체 등에 많은 애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. 폐기물 처리나 비용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.
- 류지봉: 농업에서 농산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형시설, 용자, 보조 등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.
- 류재하: 농산물 가격 폭락은 계속 되고,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 농가 경제는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. 저는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, 농촌만의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반대하는

입장입니다.

○ 리포터 활성화 방안

- 권수열: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가 잘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. 앞으로도 회원 농가 방문으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.
- 류재하, 조복례, 도진호: 회원 농가 체험 위주의 간담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돌아가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
- 류지봉: 농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너무 많은 모임으로 농사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. 리포터 간담회도 지금이 좋습니다.